

2022년 11월 6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and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Even on the male and female servants in those d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And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blood and fire and columns of smoke.
요엘 Joel 2:28-30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의 고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 주일 아침, 저희 모두가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11월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빛 지고 병 들고 고독한,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에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every one—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사야 Isaiah 53:5-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Acts 13:50-52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But the Jews incited the devout women of high standing and the leading men of the city, stirred up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and drove them out of their district.

51.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But they shook off the dust from their feet against them and went to Iconium.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비디시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말씀증거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에게 임한 것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었습니다. 말씀 증거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수많은 복음전도자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성도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But the Jews incited the devout women of high standing and the leading men of the city, stirred up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and drove them out of their district.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선동” 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그리고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아예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이란 유력한 남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여자의 권면을 무시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사주하여 남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용의주도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대인들은 아예 그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쫓겨났습니까!

51.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But they shook off the dust from their feet against them and went to Iconium.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And he said to them, "When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depart from there. And if any place will not receive you and they will not listen to you, when you leave, shake off the dust that is on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them.

마가복음 Mark 6:19-11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저주” 가 아닙니다. “증거” 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 지역은 “멸망” 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지” 는 망하여 “재” 가 되는 것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회개” 하고 돌이켜, 그 멸망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더 근신하여 지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쓸 일입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 교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들의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었으며, 명령에 순종함이었습니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렀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났던 그 자리로! 위험이 무서운 것이었다면 결코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마음을 권면하여 굳게 했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말씀을 조금 미리 읽어보기로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that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when they had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very church, with prayer and fasting they committ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사도행전 Acts 14:22-23

박해하는 지역을 떠난다고 해도, 그곳에 남겨진 “믿음의 씨앗” 을 돌보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수개월 후에 그 박해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위탁”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Pisidia)을 떠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조용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라붙어 핍박을 계속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 다음에 갔던 “루스드라” (Lystra)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따라붙은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합세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Lystra)에서 무리를 총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그들은 거의 다 죽은 바울을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박해를 받을 때 중단하거나, 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위한 시작입니다. 따라붙는 유대인들을 뿌리치면서 이들은 이고니온(Iconium)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Iconium))은 어디입니까?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 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핍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들과 관리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에 돌을 들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환난과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를 피하여 저기로 간다고 해도, 기다리는 것은 핍박입니다. IN에서 OUT으로 나가도, 거기도 기다리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위하여”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끝까지 고난의 길” 입니다.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이상합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기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뒤가 막혔고, 지금 이 자리도 환난이 있습니다. 나아가는 길도 고난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방이 막혔는데, 열린 곳은 하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성령충만 할 때 “기쁨” 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위에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순절 성령충만 때 120명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전도자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others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utter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falsely on my account.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for so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마태복음 Matthew 5:11-12

이것이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 영생의 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선교로 가야 할 곳은 땅 끝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어디를 가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있든지, 가든지, 돌아오든지, 모든 일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아멘.

기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써 복음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핍박을 믿음으로써 견디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